

최신의학상식



한국유방건강재단

한국산업간호협회 사무국

유방암이란?

유방암이란 말 그대로 유방에 생기는 암이다.

유방에 있는 많은 종류의 세포 중 어느 것이라도 암이 될 수 있으므로 유방암의 종류는 매우 많다고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유방암이 유관과 유엽에 있는 세포 그 중에서도 유관세포에서 기원하므로 일반적으로 유방암이라 하면 유관과 유엽의 상피세포에서 기원한 암을 말한다. 유방암도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치료하지 않을 경우 전신으로 전이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유방암은 선진국형 질병으로 미국의 경우, 가장 흔한 암으로 미국 여성의 8명 중 1명이 평생 동안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한국의 경우 유방암은 1994년 통계에 의하면 한국 여성 암 등록 환자의 약 11.9%로 자궁경부암, 위암에 이어 세 번째이나, 이후 급속한 증가율을 보여 2000년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15.1%로 여성 암 중 15.8%의 위암에 이어 2번째로 흔한 암으로 보고되고 있다.

유방암은 당연히 여성의 질병이지만 드물게(여성 빈도의 1/100) 남성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 대개 유방의 유관(乳管)의 세포에서 시작되어 비정형적 과증식증(atypical ductal hyperplasia, ADH)에서 관상피내암(암세포가 유관 내에만 존재)의 단계를 거쳐 침윤형 유관암(암세포가 유관 밖으로 퍼짐)으로 진행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유방건강재단(KBCF : Korea Breast Cancer Foundation)

한국유방건강재단은 2000년 9월에 여성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지킴으로서,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유방암 관련 의학자, 법조계, 문화계, 재계, 언론계 등 각계 인사들이 뜻을 모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유방암 관련 비영리재단이다.

유방암 예방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계몽사업으로 전국민적인 행사를 주최, 후원하고 있으며, 예방검진사업, 수술비지원사업, 건강강좌사업, 협력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다.

▶ 홍보계몽사업

KBCF는 유방암에 대한 예방 의식 향상을 위해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계몽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해마다 스포츠 조선과 함께 핑크리본 사랑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그 밖에 바자회나 매체 방송, 후원업체와 함께하는 핑크리본 캠페인을 통해 유방암에 대한 계몽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는 것이 KBCF 목적 사업 중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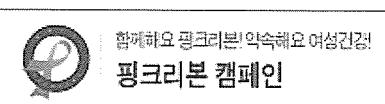
유방암 관련 정보제공, 환자들의 모임 개설 등의 홈페이지 운영, 전국 여고와 여성단체에 홍보 VTR 배포, 홍보·계몽을 위한 이벤트 행사로 핑크리본 캠페인, 핑크리본 사랑 마라톤 개최와 홍보포스터 제작, 계몽스티커, 책자 발간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핑크리본캠페인(pinkribbon campaign)〉

○ 핑크리본의 유래

핑크리본은 가슴을 꾹 죄이는 대신 실크 손수건 2장과 핑크리본으로 앞 가슴을 감싼 ‘핑크리본브라’에서 유래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유방암 예방의식 향상을 위한 상징물로 사용되고 있다.

○ 핑크리본 캠페인인가



유방암은 조기 발견될 경우 완치율이 높으며, 매월, 자가 검진을 통해서도 이상징후를 발견할 수 있어 예방율도 높은 질환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들은 아직도 유방암에 대한 부끄러운 인식을 가지고 있어 여성 스스로 유방암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여 ‘유방암 예방검사는 나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퍼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핑크리본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 예방검진사업

홈페이지 신청자는 35세 이상 대상자를 중심으로 지원하며, 35세 미만자는 선별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핑크리본사랑마라톤, 건강강좌 등 핑크리본 캠페인 행사 등을 통해서도 예방검진을 운영하고 있다.

참고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및 가까운 지역 보건소(chc.mohw.go.kr)도 이용할 수 있다.

한국유방암학회와 국립암센터의 유방암 진단시기 권고안은 다음과 같다.

- | |
|-------------------------------|
| 30세 이후 : 매년 유방 자가검진 |
| 35세 이후 : 2년 간격의 의사에 의한 임상진찰 |
| 40세 이후 : 1~2년 간격의 의사에 의한 임상진찰 |

▶ 수술치료비지원사업

유방암에 걸렸지만,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치료 받지 못하는 여성을 위해서 KBCF에서 수술치료비를 지원하며, 홈페이지의 [수술치료비지원요청]을 통해 신청하시면 서류 검토와 면담 후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 건강강좌사업

- 자체운영프로그램(홍보세미나) : 자체 기획, 전국 순회 강좌 기획
- 여성관련단체지원으로 운영
- 공동 주관 프로그램 운영 : 전문강좌, 자가검진, 예방검진

▶ 협력지원사업

유방암 예방 및 치료율 향상을 위한 연구 지원하는 차원에서 한국유방암 학회 등에서 주최하는 유방암 관련 단체 세미나와 유방암 관련 학술 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유방암 환우회의 소식지 발간과 세미나 지원등을 통하여 아름답고 건강한 여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고 있다.